

영산강 시대를 열자

두바퀴로 달린다...역사 담고 생명 품은 영산강



지난 10일 대한사이클연맹 소속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들과 나주시청, 전남미용 등 지역 사이클 선수 등 60여명이 목포 하구언을 출발해 담양 대나무숲까지 102km 구간의 영산강 자전거길을 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8>자전거 도로 달려보니

수천 년 동안 남도를 적서온 영산강에 4대강 사업과 함께 자전거길이 새롭게 조성됐다. 영산강 자전거길은 영산강 350리 물길 속에 간직된 남도의 역사와 문화의 이야기들을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다는데 그의 미가 크다.

담양군 용면 용추봉 용소에서 시작해 목포시 하구언까지 이어지는 영산강 자전거길은 전체 152.7km의 종주노선(발원지~하구언)으로 조성돼 있으며, 영산강변길 111.9km와 우회노선 40.8km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영산강을 연결한 자전거길 외에 단절이 불가피한 구간은 우회도로를 조성해 주변 콘텐츠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탐방로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거리별로 십리 코스(4km 내외), 오십리 코스(20km 내외), 일백리 코스(40km 내외), 이백리 코스(80km 내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적당한 코스를 선택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특히 평야를 따라 흐르는 영산강만큼이나 자전거길도 완만한 경사로 조성돼 있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그중에서도 광주첨단지구에서 시작해 풍영정~황토강~승촌보~지석천~강변저류지~나주영산강까지 이어지는 40.5km 도심순환노선은 개방 직후부터 광주시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탁 트인 시야, 지루하지 않은 코스=지난 9일 나주시 노안면 승촌보 수변공원에서 시작해 광주시 광산구 극락교 인근까지 약 13km 구간을 자전거로 달렸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 다소 미흡하지만 넓게 트인 시야에 들어오는 푸른 강물은 달리는 내내 상쾌함을 안겨줬다. 추운 날씨지만 자전거 길 양 옆으로 갈대들이 바람에 나부끼면서 달리는 내내 지루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과 여름이 오면 푸른 새싹이 주변을 감싸고, 화려한 꽃들이 강변을 수놓을 것을 생각하니 벌써 내년 봄이 기다려진다.

코스 중간에는 데크와 정자 등이 마련돼 있고, 일부 구간에는 자전거스테이션에 파고라, 의자, 휴지통, 이동식화장실 등을 설치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관찰 데크가 조성된 구간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쉬어가면서 주변의 화려한 자연경관을 한눈에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특히 길 노면이 다소 울퉁불퉁하고 굽기 있는 했지만 대체로 콘크리트, 아스콘 등으로 잘 마무리되어 있어 라이딩을 즐기는데 충분했다. 일부 구간에는 나무 데크로 조성된 구간이 있는 등 다양한 노면 역시 4대강 자전거길 가운데 최고 찬사를 받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또 달릴수록 주변 경관과 강의 굴곡을 최대한 살린 도로는 라이딩의 완급을 조절해

담양 용추봉 용소~목포 하구언 152.7km 탁트인 풍경 쉬엄쉬엄 즐기며 식도락 만끽

줬다. 특히 영산강 자전거 도로를 다른 자전거 도로와 달리 빠르게 코스를 달리기도 하는 주변 경관을 감상하면서 동료와 이야기 나누면서 달릴수록 라이딩의 묘미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승촌보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2박3일 동안 광주첨단지구에서 출발해 나주를 거쳐 목포 하구언까지 달린 뒤 다시 광주로 되돌아가고 있는 김영·최지호(20)씨를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수능시험을 끝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행의 코스를 이제 막 조성돼 영산강 자전거길로 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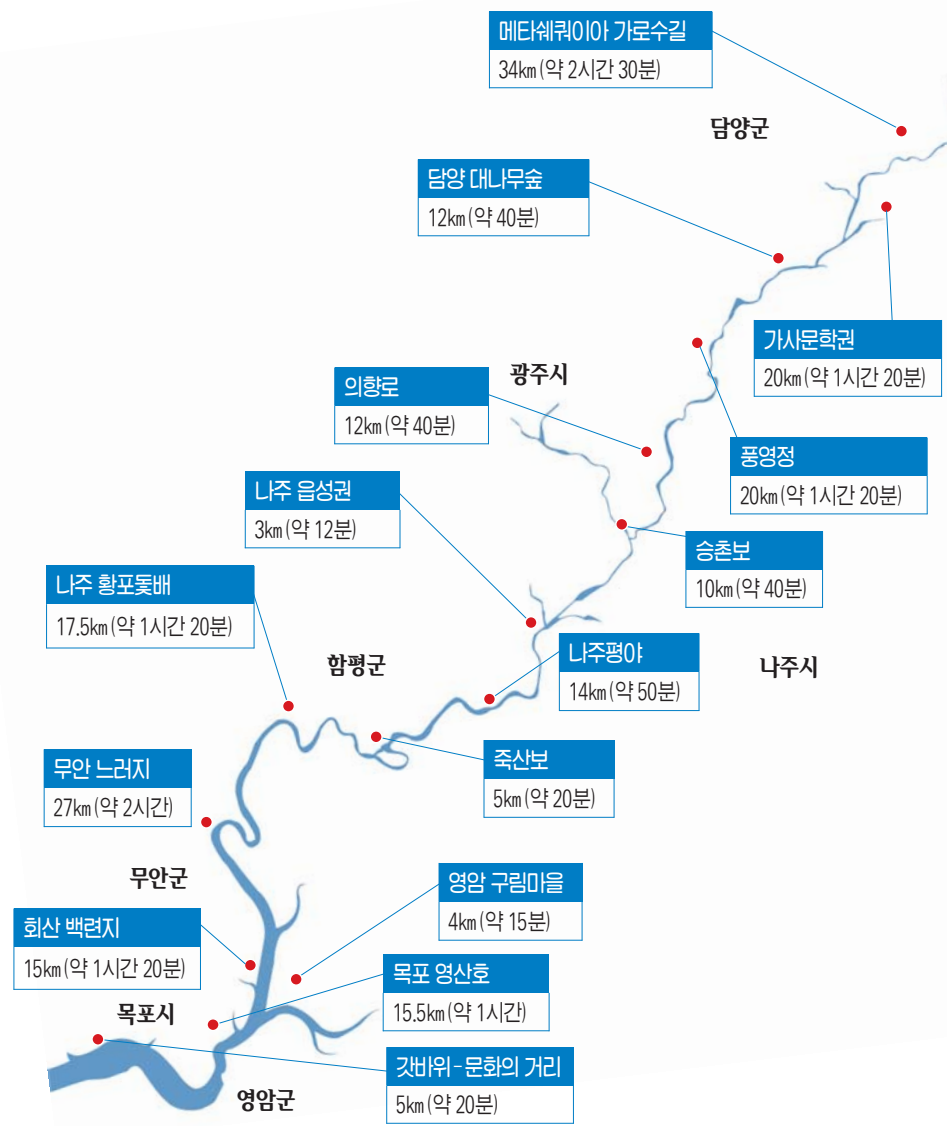
김씨는 "영산강 자전거 길은 도심 속 비좁게 조성된 것보다 달리 탁 트인 풍경이 가슴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좋았다"며 "지난 3일간 강물 따라 달리면서 영산강이 숨겨놓은 보물들을 하나씩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고 말했다.

◇달리면서 보고, 쉬어가면서 맛보고=영산강 자전거길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달리는 재미를 선사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변을 따라 달리면서 자전거를 타

고 그 지역의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게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같이 보고 느낄 수 있으며, 체험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산강 자전거길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영산강 8경으로 꼽히는 목포 영산호, 무안 느리치, 나주 황포돛배, 죽산보, 나주평야, 승촌보, 광주 풍영정, 담양 대나무숲은 굽이굽이 이어지는 영산강변의 이야기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영산강 자전거길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딜 내봐도 손색없는 남도의 맛으로 자전거길을 찾는 이들의 미각을 자극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암 독천낙지마을 ▲무안 짚불구이 ▲무안 낙지거리 ▲나주 구진포 장어거리 ▲나주 곱탕거리 ▲영산호 홍어거리 ▲나주 꽃게장백반거리 ▲광주 송정떡갈비거리 ▲담양 국수거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JAU (자유투어) travel agency. Features 'Asia/OZ' and 'MU' flight packages with prices for various destinations like Beijing, Europe, and Japan.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Advertisement for JAU (자유투어) travel agency. Features 'Mu-an Airport' and 'Europe' flight packages with prices for destinations like Macao, Cambodia, Vietnam, and Europ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Advertisement for JAU (자유투어) travel agency. Features 'Incheon Airport' and 'Special Products' flight packages with prices for destinations like Thailand, China, and Europ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Small text at the bottom of the page containing legal disclaimers and contact details for the travel agency.